

WALK ON THE BOOK, VILLAGE AND THE CITY

서울 도심 내 낙후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제안

2016. 06. 24. 2010170000 홍길동



KOREA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E

학 사 학 위 논 문

서울 도심 내 낙후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제안

A Suggestion of Cultural Complex for Revitalizing the
Depressed Region of Seoul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홍길동

2017 년 0 월 0 일

〇 〇 〇 교수지도
학 사 학 위 논 문

서울 도심 내 낙후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제안

A Suggestion of Cultural Complex for Revitalizing the
Depressed Region of Seoul

이 논문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홍길동

2017 년 0 월 0 일

(홍 길 동)의 학사학위논문(설계) 심사를 완료함.

2017 년 0 월 0 일

위 원 장 (인)

판 정 :

서울 도심 내 낙후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제안

A Suggestion of Cultural Complex for Revitalizing the Depressed Region of Seoul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학위 논문
2010170000
홍길동

INDEX

SCHEMA	1
DESIGN CONCEPT	2
SITE ANALYSIS	
Site Analysis - Physical	3
Site Analysis - Historical & Cultural	4
Site Problem & Solution	5
MASS PROCESS	6
SPACE PROGRAM	7
CIRCULATION PROCESS	8
PLANS & SECTIONS	
Masterplan & Roof Plan	9
B1 Plan	10
1F Plan	11
2F Plan	12
3F Plan	13
Elevations	14
Sections & Section Details	15
PERSPECTIVE	16

WALK ON THE BOOK, VILLAGE, AND THE CITY

PROLOGUE :: SO MANY PEOPLE LIVE IN THIS BOUNDARY, AND THERE MUST BE MANY ACTIVITIES AND MOVEMENT. BUT, DIFFERENT FROM THE PREDICTION, THIS REGION IS SO SILENT, STATIC, AND SOMETIMES SCARY. THE NEIGHBORHOOD PART IS SO ACTIVE, KINETIC AND POWERFUL BECAUSE OF MANY MOVEMENTS AND COMMUNITIES OF PEOPLE. IT LOOKS LIKE THAT THE STREAM, YANG-JAE STREAM SEGREGATE THIS SITE FROM THE REGIONAL SOCIETY. TO REVIVE, REGENERATE THIS SITE, WHAT COULD WE DO? THERE IS A PROBLEM ONLY THIS SITE HAS, AND WE HAVE TO SOLVE THIS PROGRAM TO MAKE IT POSSIBLE FOR ANYONE TO MEMORIZE THAT THIS SITE IS A SAFE AND ENJOYABLE REGION.

건축개요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대

건축용도 :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대지면적 : 12,632.3 sqm

건축면적 : 6,662.98 sqm

연면적 : 17,912.36 sqm

지하층면적 : 9832.3 sqm

규모 : 지상 3층, 지하 1층, 옥상 정원

건축물 높이 : 17.75 m

건폐율 : 52.75 % (법정 60%)

용적률 : 141.80 % (법정 150%)

주차대수 : 지상 - 21대 (장애인 전용 6대)

지하 - 172대 (장애인전용 4대)

DESIGN CONCEPT



사이트 분석을 통하여 보았을 때 대상 부지에는 대상지의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이용자와 환경은 충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이 낙후되고 정체되며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원인은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선뜻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도심지 중심에서의 풍부한 녹지환경'이라는 매력적인 장소성과 이 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환경과 사람, 그리고 행위의 세 가지를 한 데 묶는다면 이 지역과 그 주변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도시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던 각종 문화 행위, 정보 습득 등의 행위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기존의 도서관, 공연장, 갤러리 등 문화공간과는 차별화하여 새로운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의 녹지 환경을 강하게 끌어들인다. 이를 하나로 엮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프로젝트의 CONCEPT을 '문화적 산책로'로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은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행태를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콘트리트 건물 속에 갇혀 움직임 없이 이루어지던 도서관 내 행위에서,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위치하고 이를 직접 접하여 경험하며, 걷기, 앉기, 뛰기 등의 다양한 행위 등을 행함과 동시에 정보습득과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행태를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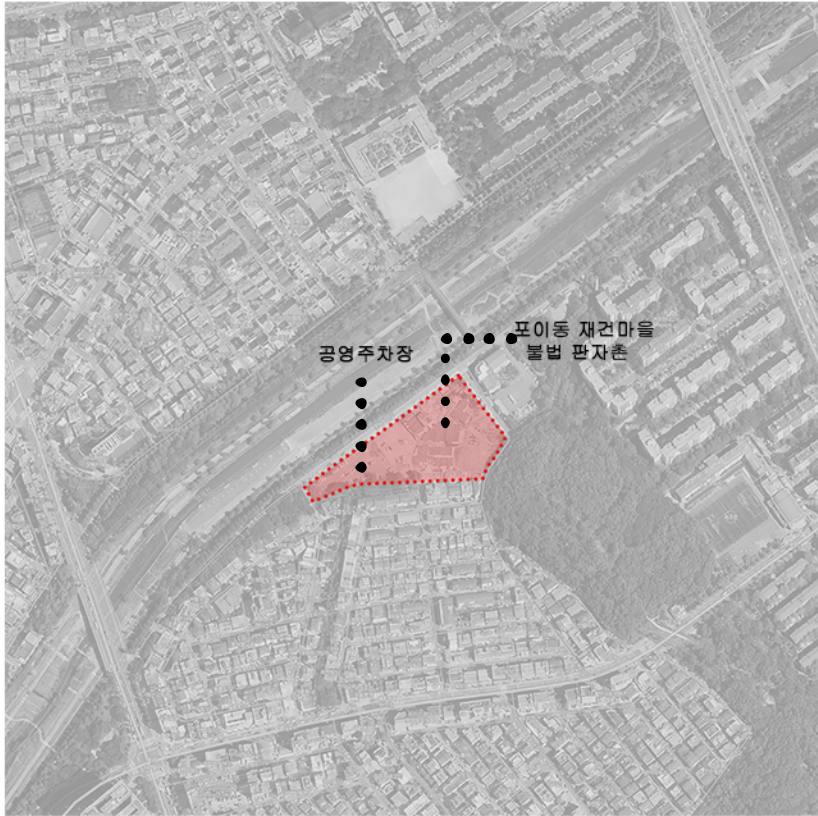


기존 도서관 이미지

도서관의 Trend 변화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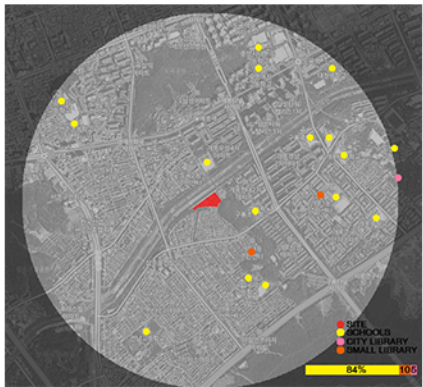
Physical Condition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대

대지 특성, 법규 분석
대지 면적 : 12,632.3 m²
건폐율 60 %
용적률 150 %

용도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서관 계획부지



FEASIBILIT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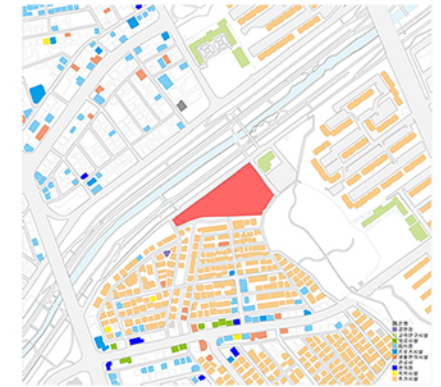
TRANSPORTATION & DISTANCE



ROADS & PASSWAYS



HEIGHT SURROUNDING



CONTEXTS AROUND

SITE ANALYSIS

Historical & Cultural Condition



개포동 1266번지의 역사와 현황

- 1980년대 '남마주이'라 불렀던 빈민들을 정부 차원에서 당시 황무지였던 이 곳으로 강제이주
- 불법 판자촌, 쓰레기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며 강남권 한가운데의 슬럼화 공간으로 변화
- 1988년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인하여 고립 및 탄압
- 현재까지 재개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지역 주민 간 갈등 심화
- 현재 해당 부지는 도서관 계획부지로 지정되어 있음
- 최근 강남구 재개발 정책에 의해 판자촌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임대주택, 아파트촌,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현상공모, 정책 등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

[서울] 강남구 마지막 '판자촌' 사라진다
 개포동 1266번지 재개발... 234가구 국민임대 주택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강남구 무허가 판자촌 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점이 되었다. 인연의 장 강남구청장은 최근 강남구청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데 이어 수천마를 등의 철반도 일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9일 강남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일 대지를 일괄 철거하는 데 이어 30일 오후 2시에 판자촌을 철거할 예정이다. 15일과 29일에는 영등포구 등 이후 6년간 대지를 단산물재정비센터 내 국유지대 철거대상지를 실시해 컨테이너 등을 철거했다.

구는 이와 함께 영등포구와 도림동 등 2014년 무단 철거한 2개 구는 물론 영등포구 등 15개 구청에 대해 영등포구 연 상공을 부과했다. 용 안 대지구 분수권을 남부화지 양 차 재산입주 및 공매권자에 물었다. 이에 대해 2014년 12월 29일 서울시청 구청장 '옛지 공매권자'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길게 줄기를 규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구는 충분한 임대주택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민중주택사업에 있던 234가구를 중 고립 지역에서 끌어와 '남마주이'를 포함한 '판자촌'이라는 '기온' 남마주이를 구성한 17호 등 16호를 재개발 실시대상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시의 진흥을 받아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등에 거주가 가능할 때까지 임대가 실시사업에 선행하도록 하고, 고립되거나 후방물품 등도 지원한다는 것이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인연의 구청장은 취임 후 구 내에 있던 판자촌과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해 왔다. 구는 수천 마에 광복을 찾아 뜻하고 갈림을 찾아 온 정비 문제를 갖고있는 주민 설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깝고 무허가주택이 많은 개포동 구름마을의 경우 공공개발을 통해 기존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100%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포동 1266번지 임대 재개발을 역사 임대주택 개발사업이 한 거주자들에게 모두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2011년 재개발을 위해 개발에 임한 이후 주민들에게는 시와 협력을 임대주택을 유치하기도 했다.

구는 국적이 없 개포동 1197-번지 임대 수천마를 주민들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외국 국적이 있는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와 후에도 기존 거주자들의 거주기간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동 임대 개발을 일련공원에 있는 250여 가구에 대해서도 시와 임대주택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와 후에도 기존 거주자들의 거주기간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자 streem@munhwa.com

[서울] 개포동 판자촌 재건마을에 임대아파트 316가구

조선일보 | 2012.04.24 09:09

연말... [Facebook icon] [Twitter icon] [Print icon]

· 내년 2월부터 개발 본격화 - 배려주인 주거권 보장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대에 자리 잡은 판자촌 '재건마을'에 임대아파트 316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일대 1만2632㎡(3821평) 땅에 임대아파트 316가구(장기전세 234가구 국민임대 82가구)를 짓겠다고 29일 밝혔다.

'재건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오이면서 이뤄진 무허가 판자촌. 땅에 커다란 바구니를 엮고 한 칸 칸 붙여 지은 '남마주이' 정착촌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재개발을 앞당기기 주관하며, 현재 시는 82가구(170명) 주민을 모두 임대아파트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아파트와 함께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 거주자를 위한 공공시설도 지을 예정이다. 저소득 현지 거주인을 위해 폐지 재활용을 처리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도 검토 중이다.

시는 세부 개발계획을 세워 내년 2월부터 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재건마을은 지난해 6월 마을 초등학교 불장사로 인해 전체 967가구 중 74가구가 불에 타면서 폐허처럼 말려진 상태다.

[이외계 기자]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재로 타버린 개포동 판자촌 다시 지은 주민에 범공형

연말... [Facebook icon] [Twitter icon] [Print icon]

2011년 1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판자촌이 화재에 휩싸였다. 폐가를 여섯달째 서지 못한 삼신애 판자촌 대부분을 태워버렸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지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없었다. 2012년 이후 살아남은 주민은 처우부담 무허가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은 뜻이 모아 보면 판자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폐허를 모두 치우고, 다시 판자촌을 짓기 못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이곳에서 2009년 이상 살았던 '모이' 266세대 시가대책위원 위촉장이 된 조모씨(55)는 강남구청 공무원들과 공담을 통해 마을 재개발을 추진해 판자촌에서 내가지 않았다. 또 2011년 7-8월 사이 마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시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같은날 결국 조씨를 공동개발자 건축비반공유권자신용보증기관법원형 기소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판자촌에 다시 집을 짓는 것이 건축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 역시 조씨에 대해 유죄를 판단. 범공형을 선고했다. 개포동 주민들은 또다시 판자집을 세우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3부서 안동 집결은 판사는 조씨에 대해 300만원의 선고금과 4년 징역이다. 다만 공공주택법에 의해 시는 "공공주택에 적법한 철거를 지시하였으므로 인정"할 것"이라며 무죄를 판단했다.

판사는 "누구든지 소유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합계가 3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에 신고하여도 관공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누구든지' 법원은 형의 법원이 따지지 않고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수직할 수 있는데도 최근은 서울시 소유인 개포동 1266번지 판자촌 건축물을 세용으로서 공유재산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무허가 판자촌 재건마을 주민, 임대주택 재정착

서울시, SH수도 공공개발...시프트 234가구국민임대 82가구 건립

연말... [Facebook icon] [Twitter icon] [Print icon]

서울 강남의 대표적 무허가 판자촌인 '재건마을'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34가구와 국민임대주택 82가구가 들어선다. 재건마을에 거주 중인 82가구 170여명은 모두 임대주택에 재정착, 주거권을 보장받게 된다.

서울시는 1980년대 말부터 급격한 도심 개발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포이동 266) 일대 '재건마을'을 30년 만에 SH공사 주도로 공공개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발되는 재건마을의 총 면적은 1만2632㎡로, 이곳에는 장기전세주택 234가구와 국민임대주택 82가구가 들어선다. 재건마을에 거주 중인 82가구 170여명은 모두 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게 돼 현지 거주인의 주거권이 보장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시는 2007년 재건마을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사업계획을 발표했지만,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임대주택 건립이 곤란해 공공계획을 유보해왔다.

여기에 재건마을은 지난해 6월 마을 초등학교의 화재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총 96% 중 피해가구인 74가구가 가설 건축물에 임시 거주하는 등 임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30년간 쌓인 오폐수, 쓰레기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도 열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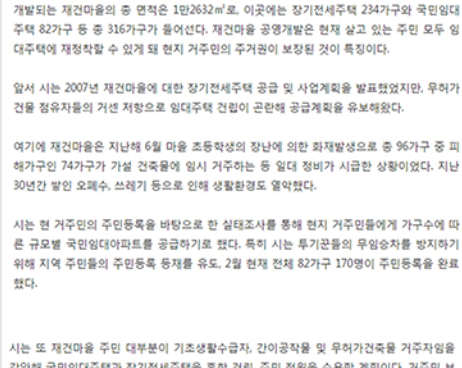
시는 현 거주민의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지 거주민들에게 가구수에 따른 규모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투기꾼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율 유도를 2월 현재 전체 82가구 170명이 주민등록을 완료했다.

시는 또 재건마을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간이공작물 및 무허가건축물 거주자임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건립, 주민 전환을 수용할 계획이다. 거주민 보호를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뒤 이주비 지원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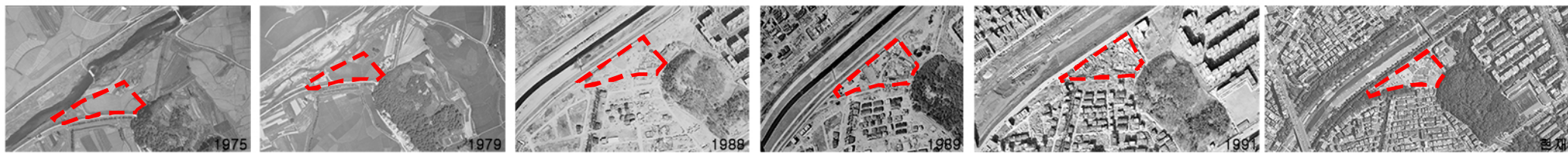
여기에 지역주민을 위해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하고 저소득 현지 거주민을 위한 폐지 재활용을 처리하는 사회적기업 설립과 문화센터 건립 등을 놓고 강남구와 협의 중이다.

앞으로 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SH공사가 마련하면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재건마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2013년 2월 착공에 착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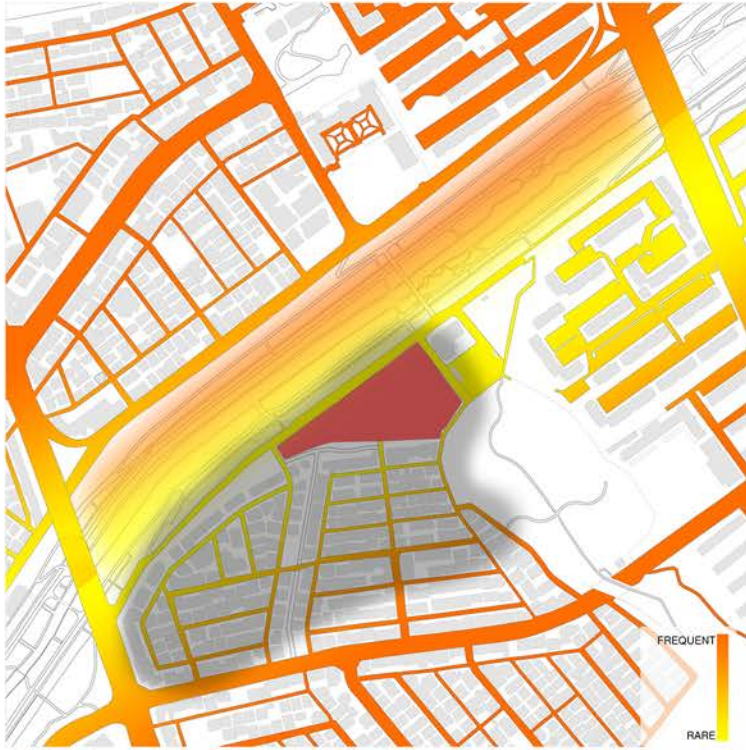
이런가 시 주택정책실장은 "SH공사 주도의 공공개발로 오랜 숙제였던 재건마을이 다시 태어나고 주소지 없이 판자촌 생활을 했던 시민들도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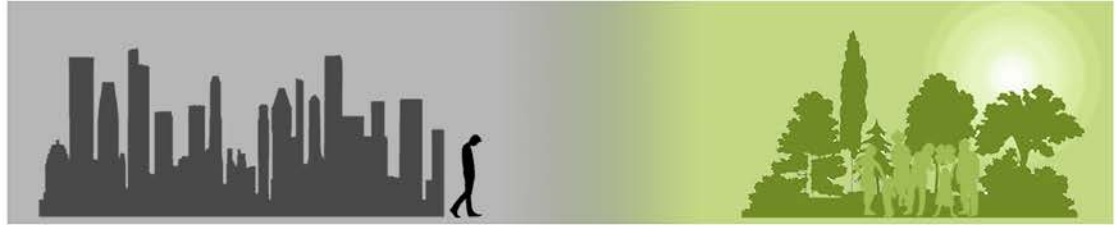
1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포이동 266) 일대 '재건마을' 개발 계획도



DESIGN STRATEGY
Site Problem &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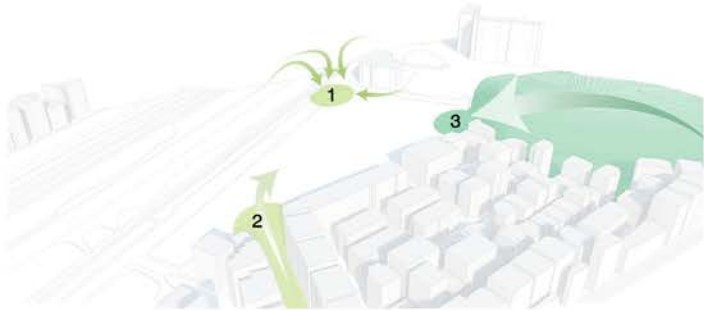
FLOATING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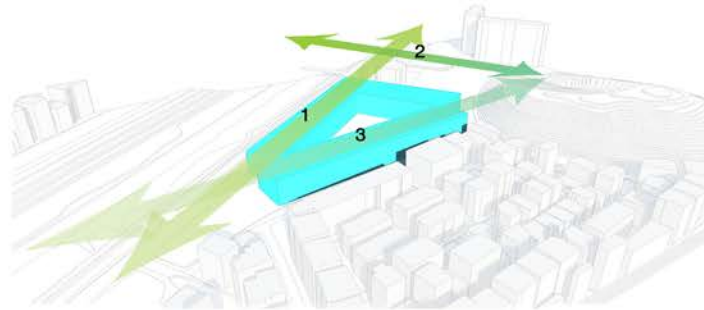
대상지 주변의 양재천은 주중, 주말마다 산책, 운동, 데이트 등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재천을 건너 북쪽으로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상점가가 개발되어 있고, 아파트단지과 각종 주택, 공원과 학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또한 대상지 남쪽으로도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아래로 왕복 4차선의 구획 도로가 존재하며, 이 도로 위로 마을버스, 지선 및 간선 버스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쪽의 유동인구도 대상지 근방에 비해서는 활발한 편이다. 앞서 대상지의 역사 부문에서도 설명했듯, 대상지 자체가 현재 불법 판자촌이 들어서 있어 대상지를 포함한 근방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거리감을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상지 내의 불법 판자촌 서측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람들의 활동이나 소통, 교류가 발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상지 내에 상주 및 유동인구가 매우 적고, 이로 인하여 그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북측으로부터의 활기는 양재천에 의해서 차단되고, 남측으로부터의 활기는 대상지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주택 단지로 인하여 차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북측 및 양재천으로부터의 활기를 받아들여 남측의 주택 단지로 전달하고 이것이 남측의 활기찬 공간들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지 내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능적 측면에만 중점을 주었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풍부한 녹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 자체를 주변 맥락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공간 경험과 경관을 제공하면서 도시적 맥락이나 지형적 맥락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건축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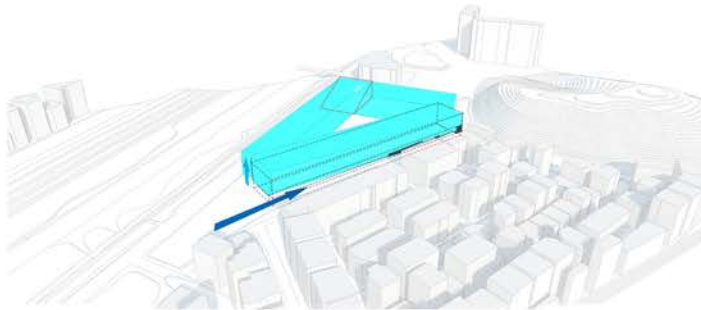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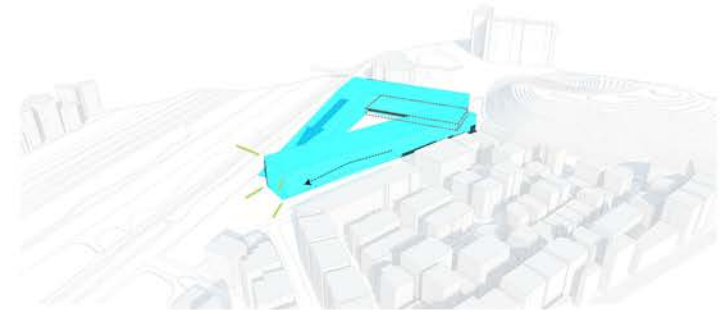
- 대상지 내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3개의 점을 지정한다.
1. 양재천, 대상지 북측으로부터의 방문객을 위한 Main Point
 2. 주택단지 내 산책로를 연장한 Point.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주요 동선이 되며 산책로의 녹지환경을 대상지 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3. 달터공원의 강한 녹지를 대상지 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Point. 대상지 내로 진입하는 투출입구 역할을 겸할 수 있다.



3개소의 지정된 점을 연결하여 3개 방향의 축을 설정한다.
 남서-북동쪽으로 향하는 축, 북서-남동쪽으로 향하는 축이 서로 직교하고 동-서로 이어지는 축이 사선의 형태로 기울어져 놓인다.
 각각을 1, 2, 3번축이라 지정한다면 1번과 2번 축은 직교하고, 3번 축이 1번 축과 30도의 경사를 갖는다.
 축의 방향대로 장방형의 Mass를 배치하고, 중앙 공간은 비워내어 채광, 통풍 등을 위한 중정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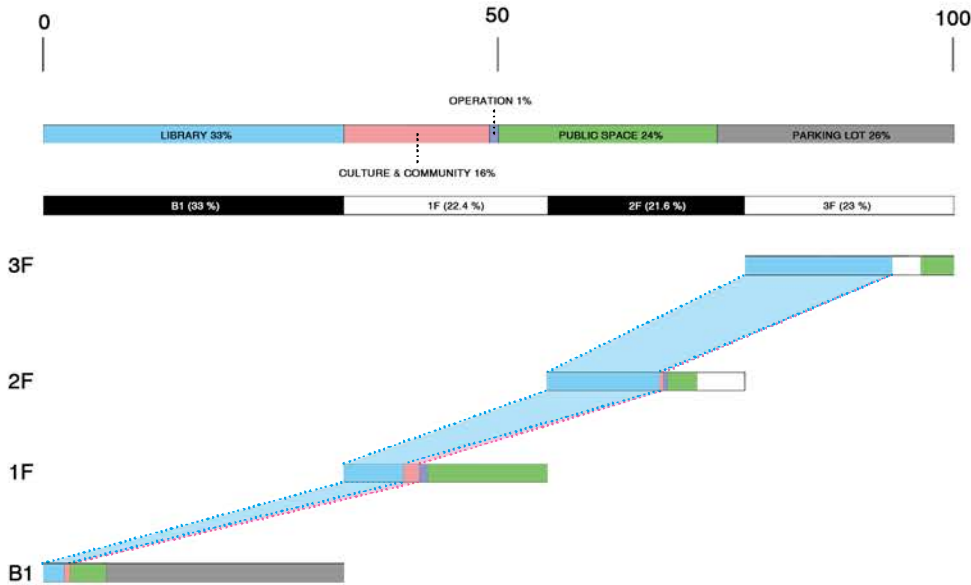


대상지 및 건축물 내외부의 주요 동선 및 주출입구를 따라 Mass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북측 양재천에서 접근하는 이용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삼각기둥 형태로 Mass를 비워내어 주출입구로 사용한다.
 남측의 단지 내로 이어지는 5m 폭의 도로와 단지 내 산책로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측 Mass의 1층을 안쪽으로 Setback 하고, 옆주에 의한 보행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서측 부분을 위로 들어올려줌으로써, 달터공원의 Level과 균형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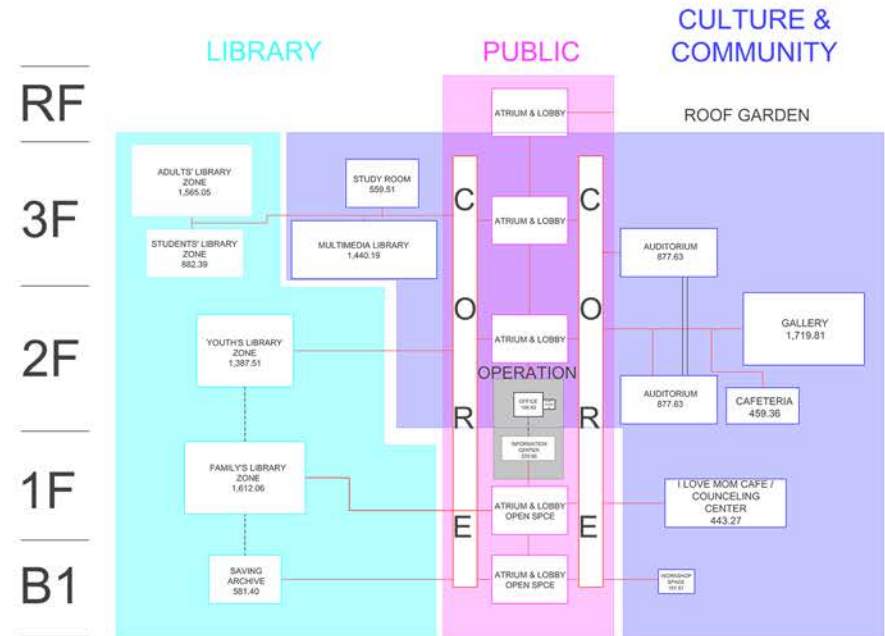


Design Concept을 구체화 할 수 있는 Mass 형태를 구성한다.
 북측의 Mass를 지상층 Level 까지 경사로 형태로 깎아내어 보행자의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북동쪽에 면하는 Mass의 1층부를 비워 Service 동선 및 지상 주차장의 기능을 부여하면서 자칫 무거워보일 수 있는 Volume감을 감소한다.
 남측 Mass가 동-서 방향으로 점점 두꺼워지도록 외곽 라인을 조정하고, 그 끝을 VOID로 열어주어 정원을 바라보게 한다. 이를 통하여 극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SPACE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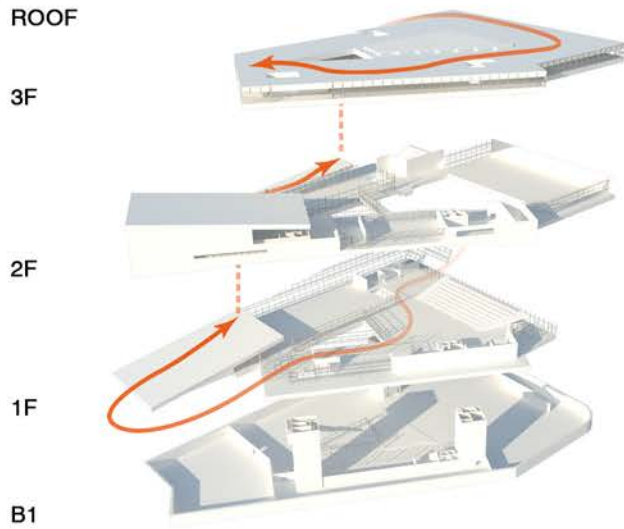


각 프로그램 별 프로젝트 내 차지 면적의 비율과 층별 바닥면적의 비율을 나타낸 도표이다. 선례를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비율로 각 프로그램별 면적을 배치하였고,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층수 및 위치를 배치하였다. 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화 및 교류 공간이 지하 1층에서부터 1층, 2층으로 이어지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공간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이용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활기찬 공간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고 각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비교적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필요로 하는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위층으로 갈수록 그 면적을 넓게 할당하여, 아래층의 문화공간과 시각적, 청각적으로는 소통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직접적인 접촉은 피할 수 있도록 실의 배치를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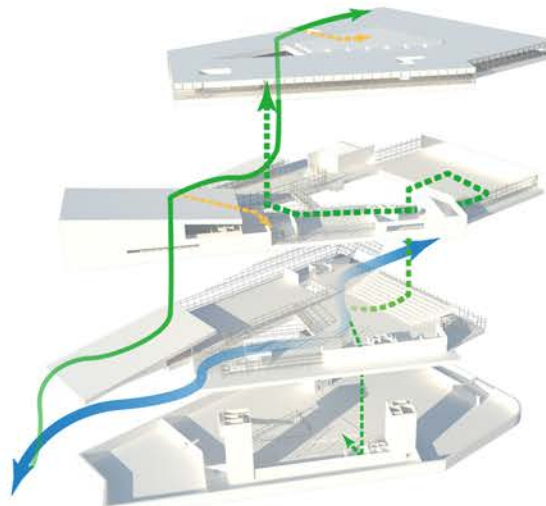
해당 도표는 각 층별 프로그램의 배치와 그 면적을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다. 지하 1층에서부터 문화공간이 위층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도서관의 영역으로 변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문화공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그 끝에서는 자연스럽게 도서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공용 공간에서는 아트트리움을 계획하여 도서관 프로그램과 문화 공간 프로그램 간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가장 주요 공간이 되는 성인, 학생용 도서 공간의 경우 중간에 세미나실, 스튜디오와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통하여 문화공간과 도서 공간 간 완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소음이나 이동에 의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1차적으로 차단해줄 수 있다. 그 밖에, 도서공간이라 할지라도 활발한 운동량과 활기찬 분위기를 필요로 하는 유아, 청소년을 위한 독서 공간은 저층부에 문화 공간과 바로 접하게끔 배치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더욱 자유로운 독서 및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보호자의 입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CIRCULATIO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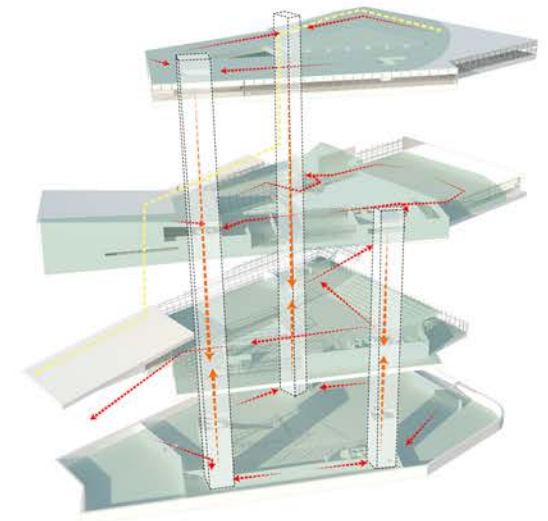
CONCEPT CIRCULATION

주변의 녹지환경을 유입하며 도시적 맥락을 유지할 수 있는 CONCEPT을 구현하기 위한 MASS를 계획하면서, 전체동선을 건축물 내·외부를 관통하며 MASS 자체를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MAIN FLOW

지상층 북측의 주출입구에서 남서측의 주출입구로 관통하는 큰 동선이 위치하고, 앞서 언급한 상징적 동선에 의하여 큰 흐름의 수직적 동선이 존재한다. 이 동선에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들이 갈라져 나오고, MASS 내부에서도 Grand Stair와 계단, 경사로를 통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상·하층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SAFETY ESCAPE

3개의 축을 따라 조성된 3개의 MASS별로 각각의 코어가 배치되어, 이 코어를 이용하여 유사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코어뿐만 아니라 본 건축물은 내·외부로의 동선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 피난 시 코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외부로 이어지는 동선을 통해 용이하게 피난을 할 수 있다.

PLANS & SECTIONS

Main plan Roof Plan



MAEBONG STATION
SUBWAY 3 LINE

NON-HYUN STREET
7 LANE CAR-ROAD

RESIDENTIAL COMPLEX

■ ■ ■ ■ ■ CAR ACCESS LINE
- - - - - PEOPLE ACCESS LINE

↑ N
SITE PLAN & ROOF PLAN
1 / 1000 0 12500 25000

PLANS & S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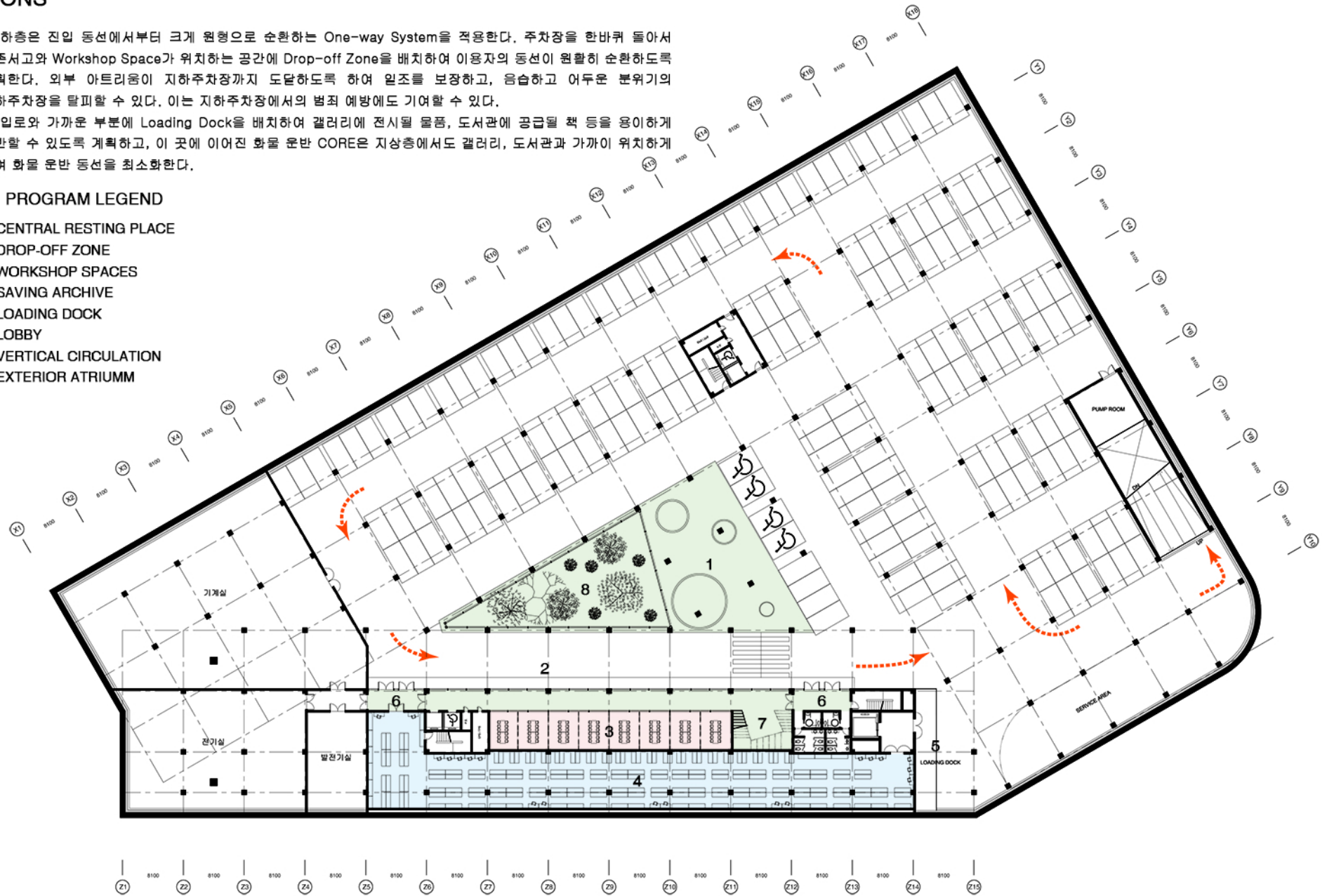
B1 Plan

지하층은 진입 동선에서부터 크게 원형으로 순환하는 One-way System을 적용한다. 주차장을 한바퀴 돌아서 보존서고와 Workshop Space가 위치하는 공간에 Drop-off Zone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동선이 원활히 순환하도록 계획한다. 외부 아트리움이 지하주차장까지 도달하도록 하여 일조를 보장하고, 음습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지하주차장을 탈피할 수 있다. 이는 지하주차장에서의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진입로와 가까운 부분에 Loading Dock을 배치하여 갤러리에 전시될 물품, 도서관에 공급될 책 등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곳에 이어진 화물 운반 CORE은 지상층에서도 갤러리, 도서관과 가까이 위치하게 하여 화물 운반 동선을 최소화한다.

B1 PROGRAM LEGEND

1. CENTRAL RESTING PLACE
2. DROP-OFF ZONE
3. WORKSHOP SPACES
4. SAVING ARCHIVE
5. LOADING DOCK
6. LOBBY
7. VERTICAL CIRCULATION
8. EXTERIOR ATRIUMM



LIBRARY REGION BUFFER REGION OPERATION REGION PUBLIC REGION CULTURE & COMMUNITY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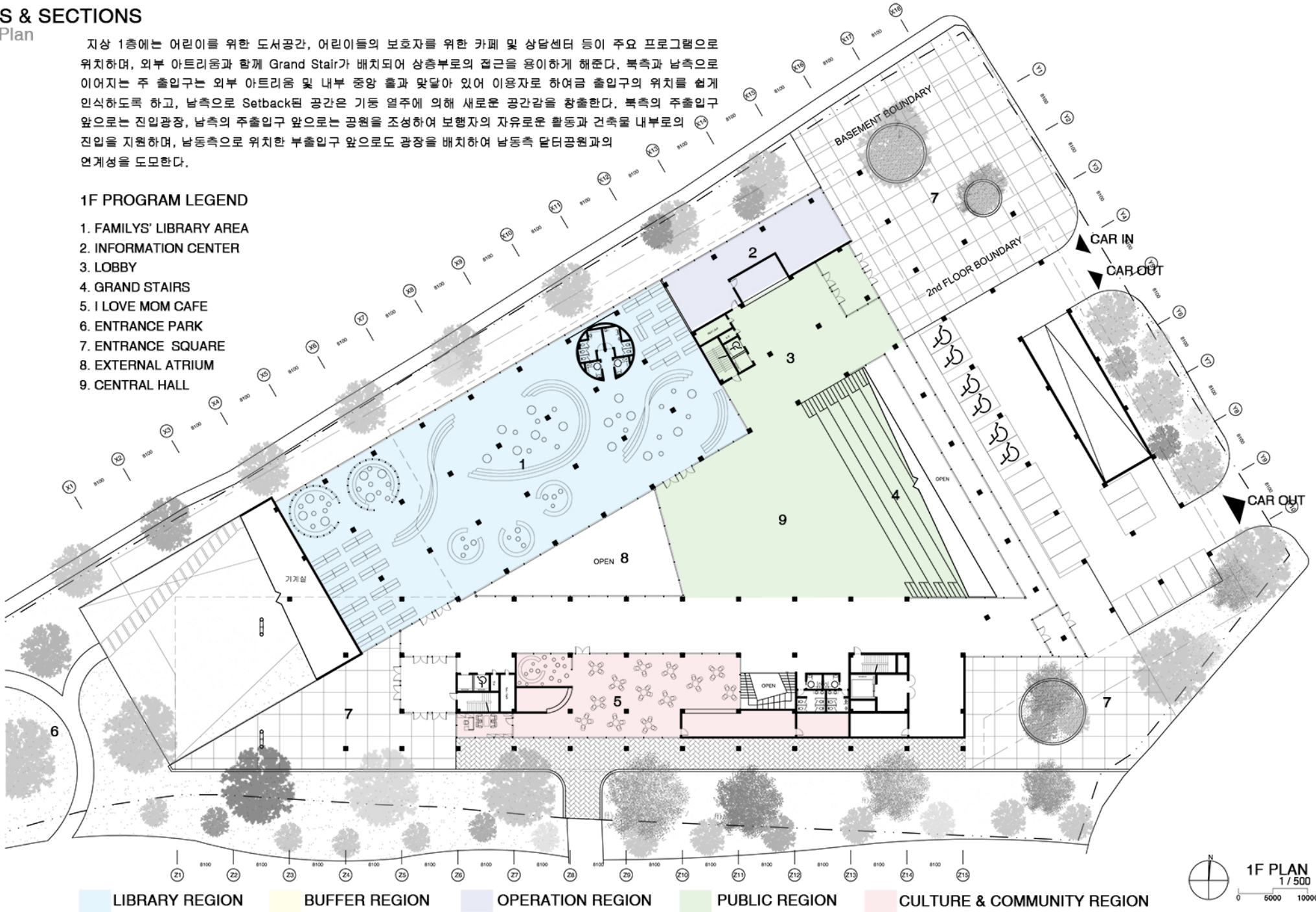
PLANS & SECTIONS

1F Plan

지상 1층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위한 카페 및 상담센터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위치하며, 외부 아트리움과 함께 Grand Stair가 배치되어 상층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북측과 남측으로 이어지는 주 출입구는 외부 아트리움 및 내부 중앙 홀과 맞닿아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출입구의 위치를 쉽게 인식하도록 하고, 남측으로 Setback된 공간은 기동 열주에 의해 새로운 공간감을 창출한다. 북측의 주출입구 앞으로는 진입광장, 남측의 주출입구 앞으로는 공원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자유로운 활동과 건축물 내부로의 진입을 지원하며, 남동측으로 위치한 부출입구 앞으로도 광장을 배치하여 남동측 단지공원과의 연계성을 도모한다.

1F PROGRAM LEGEND

1. FAMILYS' LIBRARY AREA
2. INFORMATION CENTER
3. LOBBY
4. GRAND STAIRS
5. I LOVE MOM CAFE
6. ENTRANCE PARK
7. ENTRANCE SQUARE
8. EXTERNAL ATRIUM
9. CENTRAL HALL



LIBRARY REGION BUFFER REGION OPERATION REGION PUBLIC REGION CULTURE & COMMUNITY REGION

PLANS & SECTIONS

2F Plan

지상 1층에서부터 Grand Stair을 통하여 갤러리로 바로 진입하는 수직동선과, 남서측의 공원에서부터 지붕 경사로를 따라 외부에서 강당 앞 홀로 진입하는 두 개의 주요 접근 동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두 문화공간으로 처음 접하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도서공간이 북서측으로 배치되어, 앞으로 양재천과 녹지공간이 보이는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간으로의 접근은 갤러리와 사이 공간 로비(7)를 연결공간으로 하여 분리되어 있다. 이 밖에도 사무실과 카페테리아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문화 활동이 이 층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활발한 성격을 가진 공간이다.

2F PROGRAM LEGEND

1. YOUTHS' LIBRARY AREA
2. EVENT GALLERY
3. PERMANENT GALLERY
4. CAFETERIA
5. OFFICE & CHIEF ROOM
6. AUDITORIUM
7. LOBBY
8. EXTERNAL ATRIUM
9. INTERNAL AT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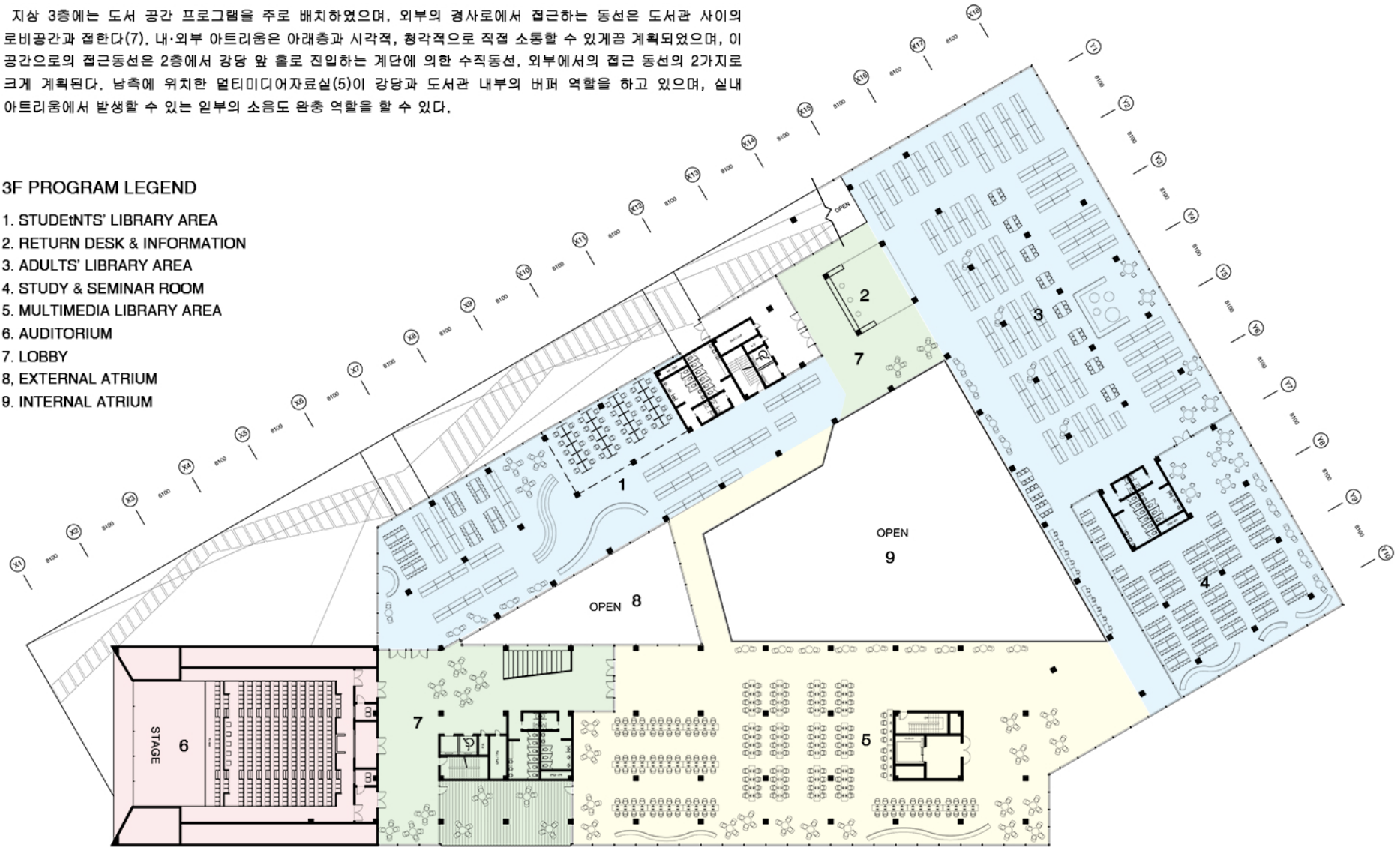
PLANS & SECTIONS

3F Plan

지상 3층에는 도서 공간 프로그램을 주로 배치하였으며, 외부의 경사로에서 접근하는 동선은 도서관 사이의 로비공간과 접한다(7). 내·외부 아트리움은 아래층과 시각적, 청각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게끔 계획되었으며, 이 공간으로의 접근동선은 2층에서 강당 앞 홀로 진입하는 계단에 의한 수직동선, 외부에서의 접근 동선의 2가지로 크게 계획된다. 남쪽에 위치한 멀티미디어자료실(5)이 강당과 도서관 내부의 버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내 아트리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의 소음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3F PROGRAM LEGEND

1. STUDENTS' LIBRARY AREA
2. RETURN DESK & INFORMATION
3. ADULTS' LIBRARY AREA
4. STUDY & SEMINAR ROOM
5. MULTIMEDIA LIBRARY AREA
6. AUDITORIUM
7. LOBBY
8. EXTERNAL ATRIUM
9. INTERNAL AT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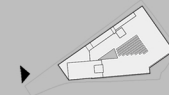


PLANS & SECTIONS

Elev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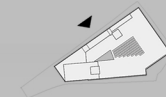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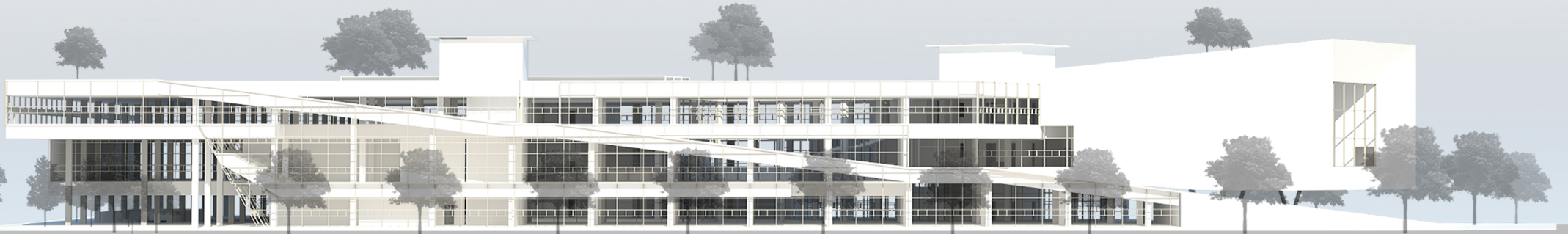
입면에서 보여주듯 강당의 무대측 외벽을 VOID처리하여, 그 전면으로 위치하는 공원의 View를 제공함으로써 극적인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단면에서 보이듯 외부 아트리움의 바깥쪽, 실내측으로 보행공간(Bridge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높이, 다양한 시야에서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외부 아트리움에 식재를 조성하여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녹지환경의 최종 집결점이 된다.

한편, 외부 지붕을 통하여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외부 경관상 사이트로 진입하는 녹지 공간이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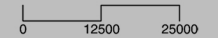
WEST ELEVATION

1 / 400



N-W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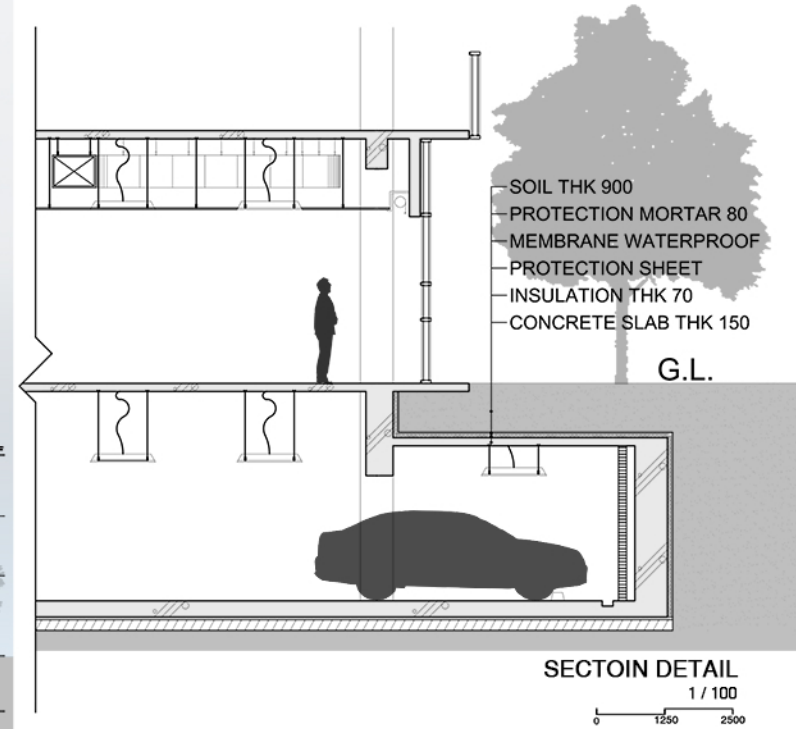
1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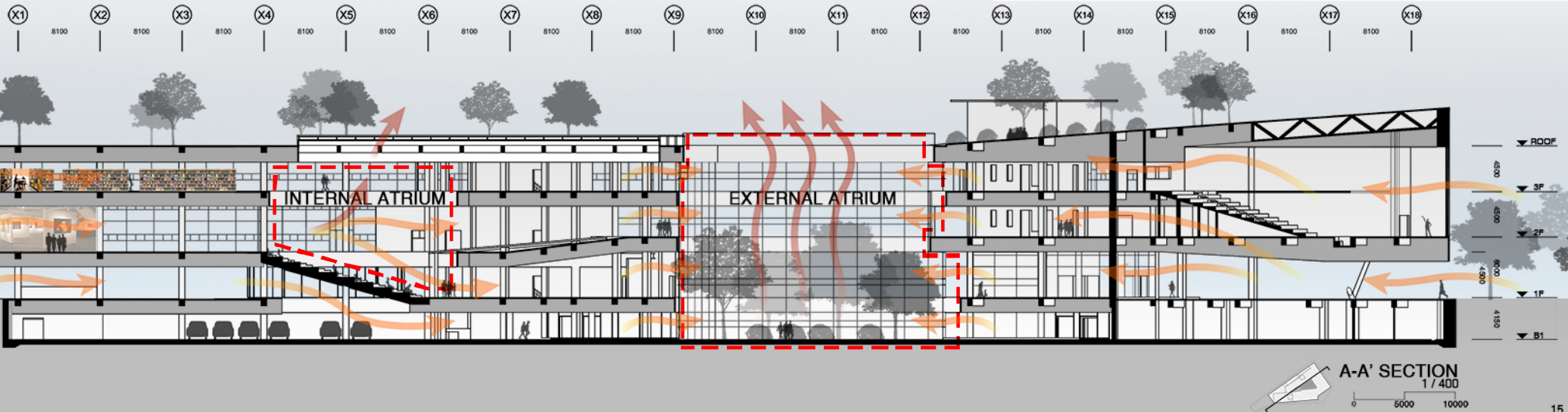
PLANS & SECTIONS

Sections & Section Details

커튼월에 의한 외부 파사드와 내부, 외부의 아트리움으로 인하여 실내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특히 외부 아트리움을 통하여 도서관 건축물 내부의 일조 환경이 풍부해진다. 지상 2층의 Slab Level은 프로그램별로 위계를 부여하기 위해 약 1,500 mm 정도 단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경사로의 형태로 연결된다. 지상 1층의 Grand Stair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보이게끔 VOID로 처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의 환기가 외부아트리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하주차장의 위쪽으로 조경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단면 상세도이다. 주차 계획에서 법으로 지정된 최소한의 높이인 2.1m를 지키면서 그 위로 토심 1m의 식재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구조와 마감 상세이며, 1층의 Setback 공간, 그 위로 2층에서의 Curtain Wall System의 설치 방법을 보여준다. 천정의 Duct Space로 전등 및 전기, 공기조화기 및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을 배치해줌으로써 건축 설비의 설치를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시스템 통합설계를 실현할 수 있다.



PERSPECTIVE



INTERNAL ATRIUM PERSPECTIVE



CONCEPTUAL CIRCULATION ENTRANCE

